

# 한·중 문화교류의 민속학:

‘문화선택론’은 무엇을 보게 하는가.

## 1. 들어가며

‘문화’ (文化, Culture)라는 말이 지금처럼 혼해진 시대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같은 이야기라도 ‘문화’는 식상하다며 다른 방식으로 발언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마주한다. 그런 이들에게 문화는 더 이상 어떤 울림도 주지 못하는 용어이자 개념이 되었다. 사실 문화 혹은 어떤 문화(a culture)에 대한 발언에는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주장들로만 가득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한편으로 그만큼 20세기는 문화의 이름으로 개인들의 역사를 미시적으로 담아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자는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현장연구(Fieldwork)의 방식으로 삶의 최전선에서 인류와 인간을 연구해 온 인류학(人類學, Anthropology)이 표방했던 ‘문화’에 대한 초기 입장도 가급적 포함시키려고 한다.

“문화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앙, 예술, 법, 도덕, 관습 그리고 어떤 다른 능력이나 습관 등을 포함한 복합적 총체다.”<sup>1)</sup>

타일러는 그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저 한 문장으로 오랫동안 회자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당시 문화연구의 목표는 복잡하게 얽힌 듯 보이는 사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라는 선언에 있다. 이는 수렴을 전제하고는 있지만, 지금 대세를 이루는 개별 문화의 문화론적 입장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인류학의 역사에는 자못 무거운 이론들이 거론되고 있다. 진화론, 전파론, 역사적 상대주의, 기능주의, 구조주의, 구조-기능주의, 신진화론, 생태주의, 문화유물론, 페미니즘 등등. 이 이론들이 시기마다 최적의 사회·문화 이론으로 분화·발전 할 수 있었던 것도 인류학이 문화의 총체성에 대한 분투의 역사였음을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다. “(인류학은) 마을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마을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은 인류학자들의 고충이 지짐을 대변해주는 것도 같다.

물론 위의 이론적 정향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고 유효하기까지 하다.

---

1) "culture is that complex whole which includes knowledge, belief, art, law, morals, custom, and any other capabilities and habits acquired by man as a member of society."(E. Tylor, 『Primitive Culture』, 1871)

그리고 현대 한국이나 중국사회 혹은 한·중 문화교류의 어제와 내일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적절한 분석적 도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도움을 토대로 한 개별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을 터이다. 그렇다면 문화학의 견지에서 지금 인류학의 문화 이론은 한중의 문화연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있다면, 왜 어찌서 그러하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질문은 충분히 던져질 만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 요청에 필자가 답할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마을현장에서 한국의 문화/민속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현재의 중국은 물론이고 과거의 뜨거움이 남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소거해 버릴 수 없음을 느낀다. 옛사랑으로 넘기고 눈감아버리면 그만일 것이지만, 한국에 있어서 중국 문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본 발표에서 필자는 한국의 문화현장에서 전승되는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 연구의 과제 내지는 상생적 미래설계에 단초라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싶다. 무엇보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 내 크고 작은 공동체의 다양성과 다면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현대 양국의 문화교류의 이해의 틀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양국은 지정학(地政學) 혹은 ‘해정학(海政學)’ 상 문화의 유사성이 높은 탓에 그에 방점을 찍어 비교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19세기 말 이래 조선의 개화지식인과 식민지조선의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우선 벗어나고자 했던 중화문명의 그늘을 생각하면, 역사적 특수주의와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적 차이를 강조 할 수 있다. 그렇게 한·중 관계에서는 오랜 교류만큼 양쪽의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 만일 이들을 아우르는 적절한 문화이론을 갈급하지 않는다면, 양국이 오늘날 어떻게 만났고 무엇으로 채워졌으며 누구와 언제 대화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문화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출발점이라 본다.

필자는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문화교류의 루트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다만 필자의 지적 경험으로 선불리 한마디 던지고 간다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중 교류사는 긴밀한 문화적 선택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고 논의를 전개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물론 ‘문화선택’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상투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유행하는 문화의 상호작용이나 문화의 생산과 유통의 상호교환은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화선택지는 구체성을 통해 마땅히 추적되어야 할 문화학의 연구방향이기도 해 보인다.

필자가 서두에서 ‘문화선택론’을 미리 제시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언급한 이유는 한·중 문화교류의 확산(Diffusion)과 이산(Diaspora)의 문제를 장기 지속의 측면에서 어제와 내일의 서사와 해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화선택이 한국인의 삶과 중국인의 삶의 실존적이고 인식론적 한계에서 수용하고 자기화한 철학작업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에 이르기 위함이다. 이제 본문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현장에서 관찰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류에서 접촉되고

‘선택된’ 문화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학의 문화연구를 위한 토대의 제 조건들은 어떻게 있는지가 검토되고 논의되는데 이르렀으면 하는 한다.

## 2. 한·중 문화교류의 실천과 시간: 문화선택과 세 개의 사례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 즉 ‘일상적인 것’을 포함하면서 구축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자. 그리고 일상은 생산이든 소비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조차 선택적 상황의 연속이다. 누구에게도 거역할 수 없는 순간순간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위로 표현된다. 이 선택의 실천과 재현에는 새로운 형식과 행동을 위한 개인들의 감정구조(the structure of feeling)(Williams, 1977)를 담되, 역사적·사회적으로 조건지워진 아비투스(habitus)(Bourdieu, 1977)의 ‘민속’도 감지된다. 여기서 한국 사례는 소위 ‘전통’이나 ‘의미 있는 과거’로 인식하는 것들이 실제로 ‘선택적’ 과정이었음을 알려준다. 레이먼드 윌리엄스(1980:39)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특정한 의미와 관습은 강조되기 위해 선택되고 그 결과 선택되지 못한 것은 무시되거나 배제된다.” 그는 특정 시기와 특정 집단에 의한 헤게모니(hegemony)를 염두에 두고 문화선택의 문화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교류적 시각(transaction approach)과 문화선택의 입론은 오늘날 그 결과로 넘어온 문화적 유산을 바라보는 역사민속적 관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즉 교류의 문화연구는 수용하고 소비하는 당대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선택되고 변형된다는 시각으로는 제한된 성과만을 얻게 될 뿐이다.

한·중 교류에서 현재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장의 힘’은 다양한 문화들을 연합하며 유행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경제적’ 이주자들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문화가 소비되고 존재하는 까닭에 문화연구자들의 일손 또한 바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힘’으로써 문화의 기능이 절실한 시대로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한 국가내의 계급과 계층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생긴 모든 국가의 문화적 선택의 압력과 충동이 야기할 수 있는 ‘분리의 연쇄(schismatic chain)’ (Gregory Bateson)를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시대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때문에 자칫 문화학은 유행이 유희하는 현대사회의 소비에 몰입된 관심과 비평만을 쏟아내기 쉬운 탓에 오히려 정치경제사회학에 다름 아닌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지금 시대의 교류는 욕망, 돈, 몸짓의 삼중주로 구성된 ‘대중의’ 유행을 문화와 등치시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되지 않은 문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떤 이유에서든 다수의 대중들이 향유하는 문화권력적 상황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하위문화는 최소한으로 지배적 문화와 모순되지 않게 변형되어 살아가면 그만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집단과 개인들이 전혀 다른 이질적 시간대를 살고 있음

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문화학의 문화연구가 선부른 결과의 원인에 천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한·중 문화교류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양국 간의 사상과 이념의 제도와 조직의 유사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역량이 커버할 수 있는 한, 각국의 생태와 자연환경, 그 지식을 떠받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문화의 확산과 이산에 있어서 ‘비선택’의 풍부함이 문화적 외상(外傷)을 줄이는 길이고 문화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점이며 그것이 곧 미래를 위한 문화적 자원이 양산되는 공간일 것이기 때문이다.

### 1) 한국불교와 ‘땅설법’

한국에서 전승되는 수많은 불교민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다. 보존되는 것은 건축물 등 유형문화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의례의 이름으로 박제화되는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불교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부처님의 설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회의론보다 앞서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저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저 문화는 도대체 무엇인가이다. 그 중에 “땅설법(-說法)”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쯤 생각하기에 좋은 의례라 소개해보고자 한다.

땅설법은 최근 2018년에 들어서야 발굴된 ‘한국적’ 불교문화유산이다. 학계에 보고된 시기가 그러하다는 의미일 뿐 사실 그들에게는 항시적으로 연행하고 있던 부처님과 불자신도들을 위한 의례였다고 하는 편이 적확하다. 그런데 이 땅설법이 한·중 불교교류에서 특이한 지점은 생각보다 그 연원이 오래되었다는 특징과 함께 양국이 문화적으로 공유하면서도 한국적 차이를 담아내면서 지속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땅설법은 부처님이 천상의 화엄성중에게 화엄경을 설하심에 대하여, 스님이 일반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법문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sup>2)</sup> 그래서 땅설법은 자연스럽게 민간포교의 맥을 잇는 문화방법론을 익히게 된 것이다.

이 전통은 본래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불교의 민간포교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당시 이를 맡은 스님들을 창도사(唱導師)·복강사(覆講師) 등이라 불렀고, 사찰 법회에 일반대중이 널리 참석하면서 목청 좋은 스님들이 비유나 인연설화를 섞어 경전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속강(俗講)이 생겨났다고 한다.<sup>3)</sup> 그래서 중국에서는 법회의 시원을 속강·강창에서 찾아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판소리가 불교의 강창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연구도 있다. 당나라에 세운 신라사찰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 머물렀던 엔닌 스님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중국 화속법사의 풍습을 적었듯이 신라에도 이러한 강창이 널리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박통사>에는 우란분절에 고려의 스님이 원나라 경수사(慶壽寺)에 초청되어 <목련경>을 설했는데, 창 의 형태로 읊는 뛰어난 역량으로 대중을 압도하여 구름처럼 몰려든 승

2) 구미래, 「땅설법으로 화엄세계를 아우르다」 『땅설법의 계승과 발전 방안』, 한국불교민속학회 발표집, p.10

3) 이렇듯 사람들을 모아놓고 운문과 서사문을 섞어 표현하는 구비연행을 ‘강창문학(講唱文學)’이라고 한다. (위의 발표집, p.10 . 참조)

속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 땅설법의 법회의 <사진>과 <영상> 자료는 PPT 발표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불교사에서 중국불교와 한국불교는 서로 소통되는 공유의 시간 꽤 길게 이어졌던 것이다. 공유는 함께 있고, 함께 아는 것이며, 함께 즐기며 공감하는 느낌의 구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속강의 한국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땅설법은 불교와 민속의 친연성이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며 생명성을 지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한·중 문화교류의 모습은 욕망과 돈과 몸짓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기보다 민속 감정의 문화학에도 관심을 쏟을 때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여긴다.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과 연회를 아울러서 강설하는 고대 학습지도법인 땅설법이 여전히 한국에 전승되고 있다는 문화적 사실이다. 중국에서 원나라이후 명·청 시대를 거치는 동안 한국에서 고려시대가 저물고 유교의 나라 조선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땅설법은 치외법권 지대였는가.

땅설법은 조선조 들어 문화적으로 선택에서 배제된 쪽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의 비틀림이 횡행하는 곳에서도 그들을 필요로 한 공간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존재들이 담고자 했던 서사가 그 속에 쓰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문화를 선택해준 일상의 삶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삶은 유행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웅변한다.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면 불교법회에서 민간포교로 시작했던 천년도 넘은 땅설법의 가능태에서 우리는 한·중 불교교류의 민속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조선을 살아왔던 땅설법에는 풍부한 설화와 가사문학이 있고, 연희와 그림자극, 노래와 춤이 시대를 응축하고 있다. 결국 부처님의 땅설법을 고집한 이유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는 방식은 비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는 모습처럼 들린다. 조선시대 ‘불교식’ 땅설법의 공존은 ‘서로가 문화 공동체를 이루며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다름 조차 무관심으로 소거해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교훈을 준다.

문화선택론은 그래서 유행을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유흥을 잠시 물리치고, ‘다문화주의’의 정치에서 ‘다문화주의’의 세계가 지닌 본질적 가치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게 돕는다. 그래서 문화선택론의 목표는 “누구나 발언할 수 있고, 훌륭한 신념과 선한 의도로서 가능한 모든 비교와 병치가 이루어지는 다중대화(multidialogue)를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를 얻고 경쟁적인 제안들이 유용해진다는 사실”<sup>4)</sup>에 이르러 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 2) 한국유교와 ‘조상’

또 하나의 한국문화가 중국문명의 사유에 크게 도움을 받아 실천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일상에서 확연히 주목되는 현상으로 논쟁에 강도에 비해 여전히 무언가

4)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윤태준 옮김, 『유행의 시대』, 오월의 봄, 2011, pp.88-90.

해명을 기다리는 ‘문화영역’ 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좋을 듯하다. 한국유교가 성취한 조상의 문화가 그것이다. 한국에서 ‘조상(祖上)’은 ‘도덕(道德)’과 더불어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사실 생명이 살고 죽는다는 일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는 죽음을 기억하고 추념하고 심지어 숭배하는 문화가 보다 발달되어 있다.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종교 전통에서 볼 때, 불교의 윤회적 입장보다는 유가철학에서 생전의 부모에 대한 효와 사후의 조상숭배가 더욱 두드러진 부분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가까이는 한국불교의 융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와 성리학적 유교사상으로 꽃을 피웠던 조선시대를 놓고 보아도 그러하다. 즉 조선에서는 왕실과 지배계층 및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친인척의 사후 조상에 대한 의식이나 의례의 장치가 훨씬 더 길고 철저하게 준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중 문화교류의 민속학에 어떤 의미를 지니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조선은 주자(朱子, 1130~1200)의 나라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들이 둘러보는 궁궐과 조선시대 세계문화유산 등이 그들의 선조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특히 조선왕들의 무덤인 왕릉의 기신제(忌辰祭)를 비롯하여 사대부가의 사당제도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다. 또 한국인들에게도 잊혀지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로 행사되는 문중(門中) 또는 종중(宗中)의 시제(時祭)나 설과 추석에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명절 차례(茶禮)가 『주자가례』의 유통과 보급의 확산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들 의례는 거의 전적으로 조상을 위한 제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의 심성에 뿌리깊이 남아 전해오는 ‘유교민속’이다.

※ 한국의 유교 조상제례의 <사진> 자료와 설명은 PPT 발표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물론 한국인들의 조상관념의 출처까지 주자의 기획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앞서 누누이 언급되고 있듯이 한국인들의 문화적 정향에서 선택되고 빚어진 창조적 탐색의 성과물이다. 이 점은 분명히 확인도 가능한데, 일찍이 조선의 선비들이 청에서 직수입하면서 서학으로 시작한 천주교와 19세기의 이 땅의 영성이 스스로 불을 지핀 동학(東學) 그리고 20세기의 역경 속에서 명멸하면서도 명맥을 잇고 있는 수많은 민족종교에서 ‘조상’을 배제한 종교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수입되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파워를 지닌 개신교조차 실제로 제사 거부에 대한 논의만 무성했지 한번도 조상을 위한 추념과 기도를 축출한 적이 없다. 그런 즉 많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조상은 그들의 영성이 일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지점에까지 닿아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중 문화교류의 민속학에서 오늘날 중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 말하자면 한국의 조상문화현상을 두고 ‘양명학도 모르고 오로지 주자학만 읊조리던 조선이 아직도 저러고 있네’ 하는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태도로

무시할 것이 아니다. 한국의 조상과 의례문화 속에는 오늘날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길에 들어선 중국인들이 목표하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뿌리내리는 데 있어 사실은 한국 유교민속의 횡단적 번역작업이 참조될 필요가 있다. ‘부장’ ‘민주’ ‘문명’ ‘화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 ‘성신’ ‘우선’ 등의 가치들은 어느 하나라도 그렇게 녹록하게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중국사회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교민속의 지켜오고 이어온 경험은 단순히 조상을 제사하는 문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포인트는 한국은 결코 ‘자기충족적인’ 문화를 써 내려가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건사한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들은 지정학적·해정학적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 간을 횡단하고 이질적인 주체들을 번역하고 혼종·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한국인들이 조상을 굳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종교를 낳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조상을 통해 지구화시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그 서사와 해석이 일상에서 구체성을 띠고 논의 될 수 있는 문화적 장소와 공간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류의 문화적 선택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없는 지역의 모자이크식 문화와 관습에 신성함을 부여해 주는 관용의 문제일 수 있다. 동시에 문화연구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의 세세하고 특별한 것들 속에서 진정함이 있음을 발견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 3) 지(地)와 해(海)의 음식문화

지금까지 언급한 문화선택론이 가능한 이유는 ‘생명자본주의시대’ (이어령)의 삶의 방식에서 도출되고 제기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가치론 때문이다. 그것은 유사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비교와 차이의 역사문화학적 과정과 그 속에 새겨진 정보들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 논의하는 문화선택은 타문화의 헤게모니적 합병이나 모순되지 않은 변형의 유도를 위한 틀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누구를 위한 어떤 문화가 어떻게 자원화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문화교류의 첫 단계에서부터 확인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가깝다. 그래서 문화선택론은 가치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일상에서의 선택, 재선택의 문화지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보자는 문화연구의 시도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음식문화가 딱 이 점에서 걸려든다. 한국의 음식문화에는 한·중 교류의 역사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은 물론이고 음식관련 문헌을 보아도 식재료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나 동물 중에는 한반도가 자생인 동식물은 드물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부터인가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론일 것이다. 동물(어류 포함)이야 제 밭로 걷고 기고 헤엄쳐왔다고 십분 양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식물기반 음식의 출처는 아무래도 인간의 이산과 확산의 교류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쩐다는 것인가.

※ 한국의 음식문화 <사진> 자료와 설명은 PPT 발표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음식문화는 휴먼 인터페이스(Human Interface), 즉 한·중 교류 공간에서 문화의 생존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가령 식물이 자라기에 열악한 환경과 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사료가 부재하면 일단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식재료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원산지와의 조건과 별개로 말이다. 그런 생각의 연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양국의 교류에서 특정 음식의 식재료의 명칭에서부터 중국 내부에서의 이동을 포함한 출처와 궤적을 알 수 있는 여러 방법론을 꺼내 드는 것도 문화연구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대목일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미 선행한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 결과로서의 음식문화가 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고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오늘날 현대 한국의 음식이 나아가는 길과 식단의 소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음식 또한 문화를 먹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음식문화 시장은 세계의 온갖 식재료들의 화려한 경합을 벌이는 축제의 장에 다름 아니다. 실로 한국인들의 입맛은 적어도 지난 40-50년간 획기적으로 변해왔다. 한국인들이 매운 것을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그들의 음식문화의 정체성으로 꼽는다는 진단도 일부만 맞을 뿐이다. 그만큼 식단의 취향의 분화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문화선택론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한·중 음식교류사의 민속학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음식 식재료의 상당부분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심어지고 길러지지 않음에도 맘껏 맛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자는 음식의 다양성이 한국의 식단에서 향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선택론의 다문화주의 세계철학과 딱 들어맞는다고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地]과 이 바다[海]의 생산물로는 한계에 이르러 구축되는 다양한 음식문화는 문화선택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새로운 맛’의 생산과정에서 자연과 생태계는 자본주의적 경제논리 아래에 숨겨진다. 그런 점에서 한·중 교류의 음식문화선택론이 들려주는 목소리는 각자의 행위가 동식물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도 세계 ‘그 자체로’ (a world ‘unto itself’) 일상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각성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건강한 문화학을 고민하고 성찰하려는 지평을 갖는 문화연구라면 우리들에게 음식으로 돌아오기까지 주목하지 않던 작은 씨앗들의 여정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가치, 다른 사람들의 가치, 그리고 사실상 ‘타자’의 가치와 대비되어 분명해 질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sup>5)</sup>를 발견하는 문화연구의 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제프리 C. 알렉산더 지음 박선웅 옮김, 『사회적 삶의 의미』, 한울, 2007, p.246.



### 3. 나오며

필자는 본문에서 한국적 불교문화유산과 유교의 조상문화 그리고 한국적 음식문화에 대해 문화학과 문화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짧고 거칠게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문화학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사유의 형식으로 빚어지는 그릇이며, 대개는 비판과 성찰의 결합으로 다듬어진다는 기본 입장을 피력하였다. 무엇보다 한·중 교류의 수레바퀴는 이제 다시 힘차게 굴러가고 있다. 서로가 오래도록 상생하는 데 인문학적 지식과 지혜가 요청된다면, 문화학의 문화연구의 지평은 이를 위해 역사적·민속학적 방법론적 접근에서 통시적/공시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즉 경우에 따라 개별기술적 작업을 할 수 있되, 법칙정립적인 지향 또한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양국의 오랜 교류가 남겨놓은 웃음과 눈물의 바다다.

첨언하면 필자는 문화학은 문화 다양성의 방주(ark)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 때 문화연구의 과제는 문화의 행위자들이 쌓아 올리는 건축물을 관찰하고 진단해보는 ‘한가한 작업’ 짚으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필자가 느닷없이 문화선택론을 들고 나온 것도 현대문화를 살며 감상해 본 작은 느낌에서 출발한다. 속도와 도약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 방식이 때로는 공동체적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일 수 있다. 문제의식은 현재 한·중 교류의 디아스포라적 상황은 양국의 일상이 자신들의 전통, 살아온 역사 그 문화를 잊으면 잊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를 향한다는 데 있었다. 좋다. 그럼에도 문화학은 우리의 주변에서 겨우 흐르는 작은 시냇물 같은 하위문화 속에서 오늘을 성찰해보는 작은 희망을 담을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